

2024.06.24

—

2024.08.04

현재,
WE,
우리는
NOW
는
W

엄우산
UM U SAN

이의용
LEE UI YONG

이정원
LEE JEONG WON

조현경
CHO HYUN KYOUNG

황재철
HWANG JAE CHEOL

KIM MYUNG SEOK
김명석

KIM SI LYANG
김시량

SONG SU YEON
송수연

SHIN JIN HO
신진호

YOON JI YOUNG
윤지영



주최, 리각미술관
주관, 갤러리 허송세월

현재, 우리는 / WE, NOW

갤러리 허송세월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현재, 우리는'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다. 서로 다른 고유한 매체로 활동 중이기에 홀로 서 있던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라는 한 공간으로 모을 때, 예술의 현재를 조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 사잇길을 걸으며 지역 위에서 독립적이며 동시에 유기적인 현재의 예술을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현재 우리는'은 현재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람으로 기획된 전시이다

참여작가 노트

김명석 김시량

송수연 신진호

엄우산 윤지영

이의용 이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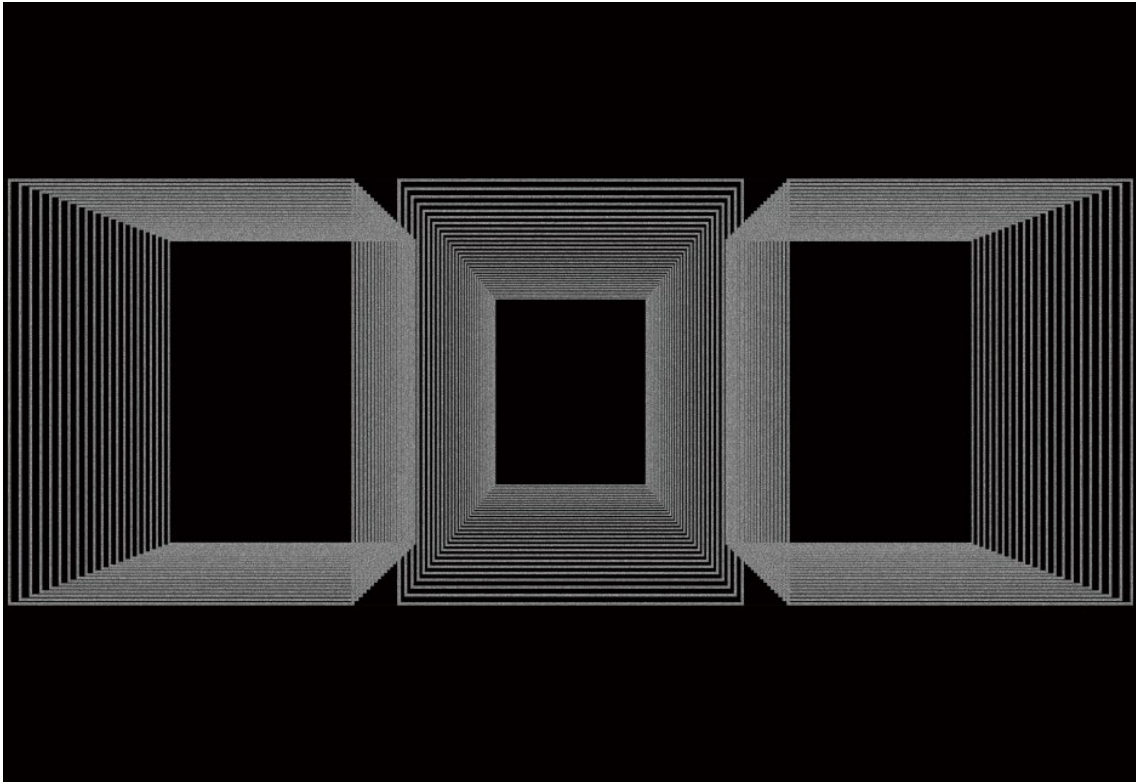
조현경 황재철



따뜻한 나라의 북극곰 원화展 - 김명석

김명석 판화 작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판화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비나 와라'는 창작 그림책 원고의 일 부분이며, 슬프거나 우울한 사람들, 분노에 찬 화가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올해 2월 판화 그림책 「따뜻한 나라의 북극곰」 개정판을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Media Art_Colour - 김시량

김시량 미디어아트 작가

도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색을 찾아내고, 빛을 통해 재해석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영상과 오브제를 활용해 새로운 시각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다.

‘빛’ 나는 도전 미디어아트 작업은 우리 삶 속의 무기력으로 잊혀진 색을 크고 작은 도전으로 우리의 색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빛으로 표현한다. ‘월요병’, ‘번아웃’, ‘무기력증’ 우리의 삶의 공통된 문제를 언젠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빛처럼, 사람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작가가 무기력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다시 자신을 되찾아나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재 빛과 색을 통해 희망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봉황도 - 송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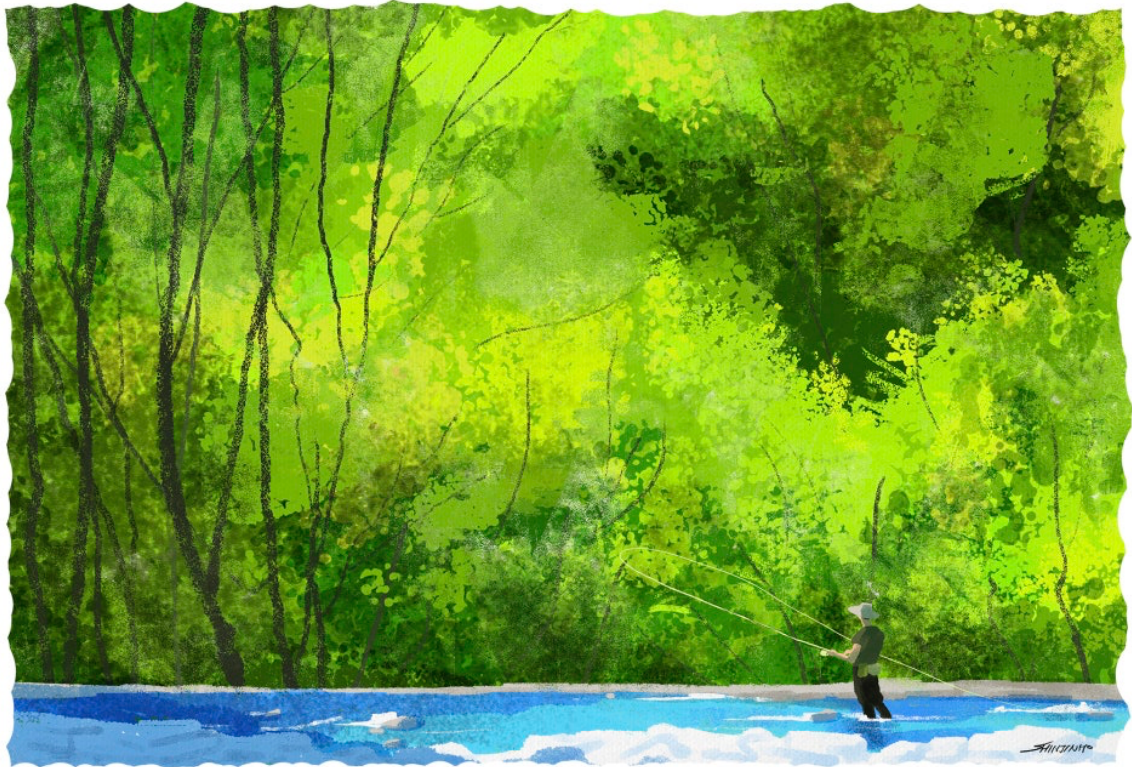
송수연 민화 작가

미래였을 과거, 현재였을 시간을 담아 그린다. 한지와 붓을 이용한 전통 그림 민화를 활용한다.

잇닿을연(連)

현재였을 시간이 오늘날 과거로 남아있다. 우리 조상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온전한 미래를 찾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작품에 담아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현재'다. 구체적으론 현재에 담긴 소망. 소망을 담아 그렸던 현재가 모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루고 있다. 구분 지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현재가 되길 바란다.

과거가 된 일상을 담은 민화를 '현재의 시간'을 담아 접목시키고 있다.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색감과 표현방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과거가 되어 우리의 일상을 보여줄 것이다.



물소리새소리뿐 - 신진호

신진호 일러스트 작가

그림책, 단행본등 다양한 매체에 그림을 그린다. 아이패드, 포토샵 등을 이용한 디지털페인팅 작업을 한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에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가 있는 한 장면으로 기록한다. 유년의 기억, 골목 모퉁이에서 발견한 들꽃 한 송이, 해질녘 공기의 변화, 가족과 떠나는 여행 등 소소한 나날도 낯선 시선으로 조금 특별하게 바라보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다. 놓치기 아쉬운 일상의 소중한함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업이다.

새로운 표현방식과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안에 좀 더 의미 있고 정교하게 구성된 내러티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나이 들면서 변화되는 감수성과 관심분야들이 그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한다.



순수한 향기 - 윤지영

윤지영 회화 작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놀이와 쉼에 대한 욕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물에 떠 있는 사람, 꽃향기, 흐르는 바람 등을 소재로 휴식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종이보드에 과슈, 캔버스에 아크릴, 한지 등을 그림에 사용하고 있다.

FLOATING 시리즈의 이야기는 무엇 하나 걸치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상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림 안에서 쉬거나, 내가 여럿이 되어 함께 놀기도 하는 모습은 느긋하고 한가롭다. 무중력의 공간, 향기로운 공간, 자유로운 공간에 떠다니며 즐기는 나의 모습을 그림책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려 한다. 그리기 과정을 통해 정서를 치유하고, 삶에 필요한 나만의 즐거운 놀

이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일상에서 느슨함, 평온함, 균형감 같은 소소한 감정을 깨우고 관객과 함께 재미를 느끼고 소통하려 한다. 스스로 생겨나고 나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에 친절한 관찰자이고 싶고 그 생명력에 기대어 노는 천진한 아이가 되고 싶다. 나만의 즐거운 판타지를 찾아떠나는 여정을 다양한 이야기와 매체들로 대중들과 만나고자 한다.



돌, 부서지다 - 엄우산

엄우산 사진 작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탐구하고 흔적을 기록한다. 사진 매체로 대형카메라 4x5인치를 활용한다.

‘흔적을 찾아서’ 사진 작업은 조선총독부부재전시공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과거의 만행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현재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역사적 상처가 남겨져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흉터가 지워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천안에 위치한 조선총독부부재전시공원을 촬영한 '돌, 부서지다',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경북궁 '광화문 월대 철길', 건축 석재를 채석하여 만들어진 '창신동 절벽마을'을 선보인다.

현재는 창신동 절벽마을 채석장(절벽)에서 채석된 석재를 이용한 조선총독부, 한국은행,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아미동 절벽마을 등 흔적을 찾아서 기록하고 있다.



아빠 한 살 - 이의용

이의용 캘리그래피 작가

일상을 소재로 글을 짓고 쓰고 그린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여 글씨를 쓴다. 해당 전시엔 대붓과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아빠 한 살'엔 우주의 탄생과 아빠의 마음을 담았다. 특별한 작가가 되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행복과 우울의 경계를 넘나들며 평범한 아빠가 되어보기로 마음먹으며 써 내려간 작품이다.

'도서이정'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 소치 허련의 글이다.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지려 노력한다. 우리는 결국 가장 즐거운 길로 향하게 된다.

나에서 아빠로, 다시금 한 살이 되어 세상을 배워간다.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창작을 고민한다.



단풍마을 인싸 - 이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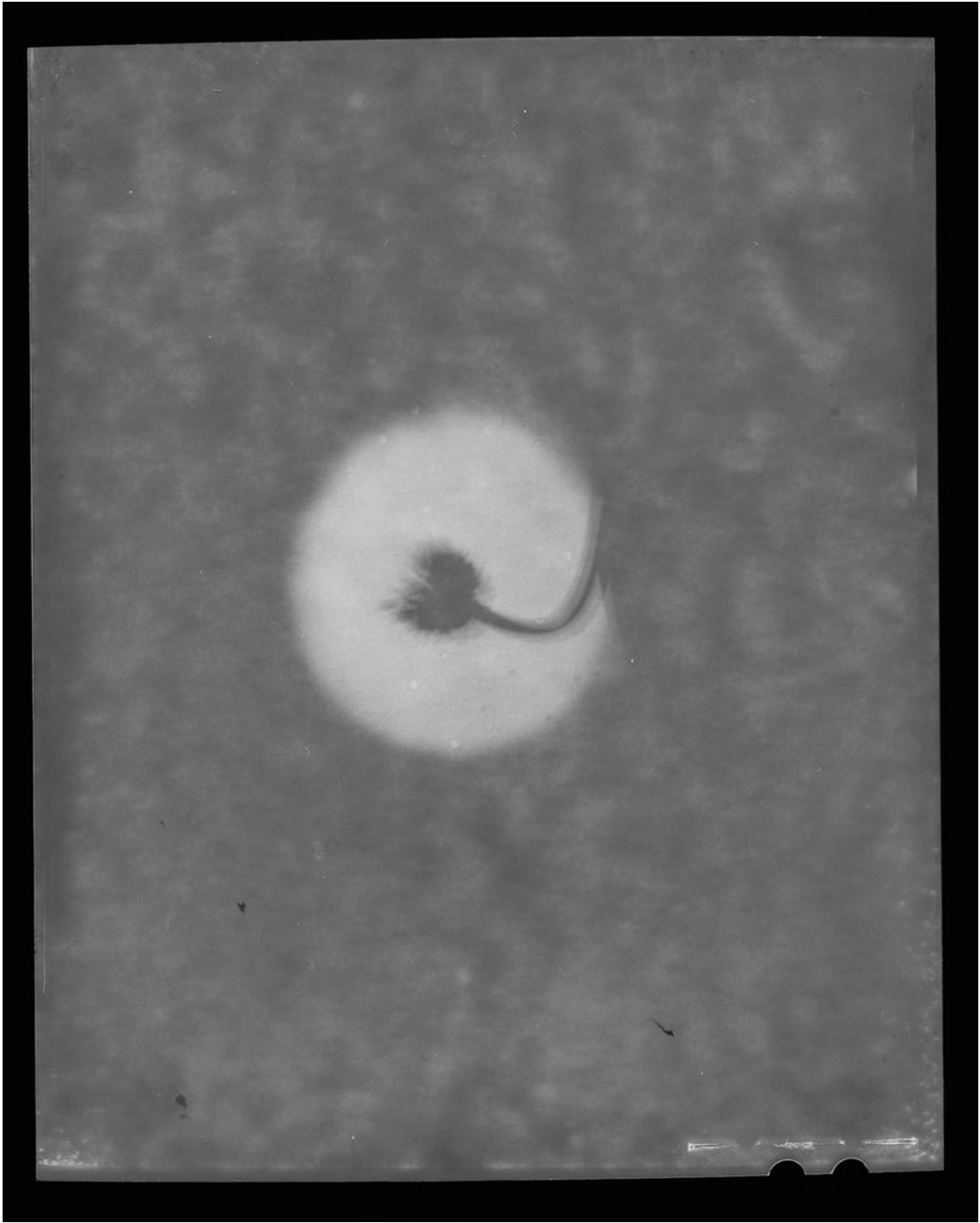
이정원 그림 작가

그림책과 만화를 그린다. 디지털드로잉을 매체를 사용한 작품이다.

'노랑마녀 마요' 는 현재 작업 진행 중인 그래픽 노블&창작만화이다. 그림자 마녀 샤샤의 모든 세상을 그림자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에 맞선, 노랑마녀 마요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출판 만화로 기획하고 제작 중인 작품으로 현재 1권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본문 내용 중 일부분을 담아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웹툰이 대세이지만 작가의 어릴적 만화책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쉬웠다. 웹툰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작가의 꿈과 희망을 담아 창작 출판만화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는 '노랑마녀 마요'는 202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다양성 만화 출판 중편 작품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단행본 1권 분량을 만들어 2025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에 매진하고 있다.



Go Moldy Flower - 조현경

조현경 문화기획자

나를 찾아가고 있는 작업을 한다. 대형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매체 작업이다. 유통기한 20년이 지난 4x5인치 흑백필름을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었던 25년을 살았다. 20년 동안 필름의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지낸 25년의 모습과 비슷했다. 나를 찾기 위해 20년이 지난 흑백필름을 선택했다. 촬영한 사진에 결과물엔 곰팡이가 필름 표면에 나타났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곰팡이가 핀 필름과 잊혀졌던 나를 표현한 사진이다.

현재는 “다른 사람처럼 말고 나처럼 살아보자”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기획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중앙 슈퍼 - 황재철

황재철 사진 작가

유리에 사진을 담는다. 유리건판은 1871년 영국의 매덕스에 의해 발명이 되었다. 플라스틱(폴리에스터) 필름이 상용화되기 전에 평면성과 투과성이 좋은 유리에 빛에 반응하는 유제를 도포하여 촬영하는 기법이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과 신민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약 3만 8천의 유리건판 자료가 국립 중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00년 전 그들의 불순한 의도로 제작된 문화재 유리건판 사진과 같은 위치, 같은 앵글, 같은 소재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유리건판 촬영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유년 시절이 기억 중 슈퍼마켓이 있다. 필름이 디지털로 대체 되어가고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대체되어간다. 사라져가는 슈퍼마켓과 이미 사라진 유리건판 기법을 재현한다. 개인의 기억도 중요한 기록이며 유년기의 추억을 볼 수 있다.

오래된 액자 속 유리에는 필요 없어진 기억이 담겨있다. 유리건판 기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